

해외진출을 통해서

<한국여행사> 김 정 환

나의 직업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간호원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uniform에 cap을 비스듬히 멋지게 쓰고 알뜰내음이 풍기는 병원에서 분주히 오가는 이들을 만나고, 사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세태에 대한 대화를 한가롭게 나눌 때면 나 혼자만이 바쁘다는 느낌을 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미 좋으십니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사의 말을 걸어올 때 또 wit에 찬 joke를 주고 받을 때 나는 무언가 흐뭇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해외진출을 돕는 나에게 의욕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사회에 다종다양한 직업인이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논하고 싶은 대상은 간호원입니다.

그만큼 간호원은 나에게 매력적인 존재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간호원! 이는 누가 뭐라 하여도 긍지로 충만한 결연한 인격을 갖추어야 할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간호원 여러분 각자가 의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항상 봉사할 줄 아는 아량있고 인자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줄 때 그럴만한 자격을 갖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복리와 건강을 위해 중책을 걸머지고 있는 간호원에게 이 귀중한 것이 절여될 때 자신의 손실은 무엇이며, 사회의 결함은 과연 무엇일까? 냉정히 비판하고, 분석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호원 여러분은 정확한 실력자여야 하고 계획성 있는 설계하에서 알찬 삶을 영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회인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여

러분은 안일에서 근면으로, 여기에서 빛나는 자아완성을 이룩하여야 발전하는 사회의 elite로서 당당히 자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좋은 인상을 주신 분도 있겠지만 한편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들은 관찰력을 예리하게 갖고 vision 특히 practical training에 대한 vision을 넓혀야 하겠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분들을 볼때 나는 멋진 사람들은 간호원이라고 조용히 격려의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무분별하고 주체성없이 행동을 하는 분들의 말을 경청하노라면 나는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전과 뜻한 바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허울 좋은 녀두리보다 값진 충고를 드려도 좋을런지? 여기서 해외진출의 문제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간호원들의 해외진출의 경향이 현저한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날로 세분화되고 발달하는 해외의학의 지식을 쌓고자, practical training을 연마하기 위해서, 죽위를 선양 하고파서.....등등의 이유를 말하면서 해외진출의 결정을 본 것은 좋으나, 자기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남이 간다고 나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간호원답지 않은 사고관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속이 끝나고 우왕좌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해외진출만이 제일인양 마음이 들때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소일하는 분들, 외국어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없으면서 해외진출이다 하고 뛰어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nonsense가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웃지 못할 현실의 일입니다. 참고로 적어도 핵의진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실무자의 입장에서 몇마디 부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숨은 민간의고관으로서 역할을 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가? 둘째,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갖추었나? 셋째, 간호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과 소양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가? 넷째, 가고자 하는 상대국의 언어에 대하여 말하고 쓰고 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의학의 지식을 확장하고 practical training을 얼마하는 데 있어 어떠한 고생도 감수할 수 있는가? 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가하여 더욱더 모든 유익한 것을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가? 등등의 필수사항을 앞에 두고 심사숙고하여야 할 줄 압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간호원들이 외국으로 진출할 것이 기대되므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상기한 사항에 자신을 갖고 수속으로 발절음을 옮길 때 좋은, 그리고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다운 꿈을 갖고 자신을 개척하겠다는 생각과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아름다운 인상이 이 사회를 더욱더 명랑하게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도 많은 병원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배워온 기술과 지식을 마음껏 단축할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기를 기원하고 싶습니다.

등시에 여러분들은 희망에 찬 이상을 간직하고 열심히 자기의 맡은 책임을 다할 때 각자의 알찬 발전은 물론 국가의 빛나는 발전이 기대됩니다.

민인자 총무부장에 10년 근속 표창장 수여

1968년도 제 37회 총회를 대행한 지난 4월 18일 전제이사회에서는 홍신영회장이 본협회 민인자 총무부장에게 10년 근속표창장과 금메달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공을 높이 치하하였다.

1958년 10월, 사무실도 없는 가난한 간호협회 살림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만 1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호협회를 지켜온 민인자 총무부장은 이날 굳이 표창 받기를 사양했지만 역시 간호협회 사람이라 간호협회의 뜻을 어길 수 없어 간호협회 마크가 새겨진 금메달을 받으면서 감격한 어조로 인사를 했다.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말이 많고 또 복잡하며 일이 많은 간호협회에서 10년이란 긴 세월을 일해 왔다는 것은 보통 다른 기관에서 15년, 20년씩 일한만큼의 애트와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재정을 맡아 적은 살림을 꾸려나가려니 1원 2원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돈을 한번 쓰려면 몇 사람의 도장이 찍혀야 하니 본의아닌 노령

이 노릇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동료간에 인심만 사나워지는 듯 하여 곤란할 때가 많았으리라고 본다.

그러기에 너무 공상을 떠내고 하여 사무실 안에서는 차마 “중상”이라고 할 수 없어 거꾸로 “상중”이란 별명을 붙여 “민상중 민상중”하며 농을 하게까지 되었다.

뿐만아니라 항상 100원 한장이라도 그것으로 여러가지를 사기 위해 나누어 쓰는 버릇이 생겨 일버릇처럼 “젓어 받겨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하는 얘기가 나와 가끔 직원들은 “젓어 받겨서……”하며 흉내를 내어 한바탕 웃기기도 한다.

이처럼 젓어받진 1원과 10원이 모이고 모여서 100원, 1,000원이 되었고 셋집에서 우리집을 사게 되고 또 이번에 더 큰 우리집을 짓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곧 민인자총무부장의 알뜰한 살림살이가 크게 밑받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